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1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28일(목)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28. (목)	담당부서	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
담당과장	오경희 과장 (043-870-5550)	담 당 자	김종윤 연구관 (043-870-5551)

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

- 국가기술표준원, 28일 「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28일(목)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와 기업, 업종별 협회 및 단체,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5차 기술규제 정책 컨퍼런스(이하 '컨퍼런스')」를 개최했다.

* 기술규제 : 정부가 환경, 안전 등을 위해 제품·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·검사·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
(예) 전기용품 안전인증, 식품의 표시기준,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

○ 국표원은 국무총리 훈령*에 따라 '13년부터 국내 기술규제 애로 발굴 등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,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.

*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<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 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'19. 11. 28.(목) 14:00 / 팔래스호텔 B1 다이너스티A
○ 주최/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/ 4개 시험연구원(KTR, KTC, KCL, KTL)
○ 참 석 자 : 국표원장, 수상자,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, 협단체 등 100여명

□ 이 날 컨퍼런스에서 정부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*을 수여했다.

* 기술규제 발굴분야 3명 , 대응분야 1명 (붙임 참조)

□ 국표원은 컨퍼런스에서 정부 규제를 사전*과 사후**단계에서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*,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**제도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해소하는 기술규제 애로개선 등 '19년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.

* 법령 제·개정시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
**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 시험·인증제도의 존속·개선·통합·폐지 필요성을 검토

○ 기술규제 애로개선의 경우, 전동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원화하여 설계·제작 비용을 절감하고,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공유했다.

*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 높이 기준이 국제표준과 달라 비효율 발생 → 국제표준이 적용된 KS와 일치하도록 국내 안전기준을 개정 (약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)

□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,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.

○ 이 날 참석한 기업,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

○ 이를 위해 기술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.

□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"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고,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강화해야 한다"면서

○ "기술규제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

【붙 임】 1.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 프로그램
2. 기술규제 기업 애로 개선 사례
3. 장관표창 수상자 주요공적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김종윤 연구관(☎ 043-870-55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 프로그램

구 분	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개회	14:00	개 회	사회자
인사말씀	14:00~14:05 (5분)	인사말	국가기술표준원장
축사	14:05~14:10 (5분)	축사	충북대 김두현 교수 (기술규제위원 위원)
유공자 포상	14:10~14:20 (10분)	기술규제 애로 발굴 대응 유공자 포상 - 시상 및 수상자 기념촬영	국가기술표준원장
세션 1	14:20~14:35 (15분)	'19년 기술규제 개선활동 현황	기술규제조정과 김종윤 연구관
	14:35~14:50 (15분)	기술규제 개선과제 사례 발표 (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 일원화)	건설기계산업협회 권태우 이사
휴식	14:50~15:15 (25분)	커피 브레이크	
세션 2	15:15~15:30 (15분)	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	행정연구원 홍승헌 부연구위원
	15:30~15:45 (15분)	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	산업기술진흥원(KIAT) 유민화 팀장
	15:45~16:00 (15분)	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현황	생산기술연구원 (KITECH) 김형진 팀장
	16:00~16:30 (30분)	[질의 응답 및 토의] 기업애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플랫폼 활용방법	연사 4명
폐회	16:30	폐 회	사회자

붙임2 기술규제 기업 애로 개선 사례 (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 일원화)

□ **과제명 :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 일원화**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)

○ **(문제점)** 전동 지게차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헤드가드(Head Guard)에서 운전석(좌승식) 혹은 바닥면(입승식)까지의 최소 간격을 규정한 국내 기준과 국제표준이 상이

- 내수용과 수출용을 차별 생산으로 인해 업체의 설계·제작 時 불필요한 비용 증대에 따른 제품 경쟁력 저하

《전동 지게차 관련 기준》

▸ **국내 기준과 국제표준 비교**

지게차 구분	국내 기준 (위험기계·기구방호조치 기준)	국제 표준 (KS B ISO 6055:2015)
좌승식	1,000mm	903mm
입승식	2,000mm	1,880mm

▸ **오버헤드가드까지의 높이 :**

- 운전자의 바닥면(입승식) 또는 운전석(좌승식)에서부터 머리 위의 오버헤드가드 상부까지의 수직 간격을 의미



좌승식 입승식

○ **(개선)** 노동부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개정 ('19.1.31)

-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(헤드가드에서 운전석 혹은 바닥면까지의 간격)을 국제표준(ISO)과 부합화된 KS와 일치하도록 개정

○ **(기대효과)** 설계 일원화로 재료비, 공정가공비, 인건비 등 절감을 통해 약 91억원*('18년 기준)의 전동지게차 제작비용 절감 예상

- 1,300,000원[1] × 7,000대[2] = 91억원

[1] 탄소강 재료비, 설계비, 공정가공비(도색, 용접, 열처리 등), 인건비 등 – 전동지게차 1대 기준 (자료출처: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)

[2] 전동식 지게차 '18년 생산량

붙임3 장관표창 수상자 주요공적

[1] 기술규제 발굴 유공자 부문 : 장관표창 (3점)

훈격	성명	소속·직위 (수공기간)	분야	주요공적
장관 표창	김현남	GMTCK 차장	기업	▪ “인간협업형 로봇” 등 3건의 애로제안 및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▪ ICT 융복합혁신기술분과위 분과위원으로 포럼, 협의회, 분과위 등 12회 참석하여 애로 제안 및 개진된 안건에 대한 8건의 자문 의견 제시
장관 표창	김영석	LG전자 소재기술원 광학연구소 부장	기업	▪ “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선” 관련 애로제안 및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▪ ICT 융복합혁신기술분과위 분과위원으로 포럼, 간담회, 분과위 등 11회 참석하여 개진된 안건에 대한 21건의 자문 의견 제시
장관 표창	김만석	(사)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부장	협·단체	▪ “의료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범위 확대” 등 기업애로 기술규제 애로제안 7건 및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▪ 의료기기, 조선, 철도, 항공 분야 분과위원으로 포럼, 간담회, 분과위 등 6회 참석하여 애로 제안 및 설명

[2]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부문 : 장관표창 (1점)

훈격	성명	소속·직위 (수공기간)	주요공적
장관 표창	김기연	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	▪ 융복합 혁신기술 분과 기술규제 발굴 및 대응 담당 ▪ 기술규제 제도개선 및 애로발굴을 위해 포럼, 간담회, 분과위 등 16회 참석 ▪ “융복합형 전력량계의 기술기준 제정” 등 48건의 애로 발굴 및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▪ 전시회, 박람회 등 부스운영을 통해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애로 개선 홍보